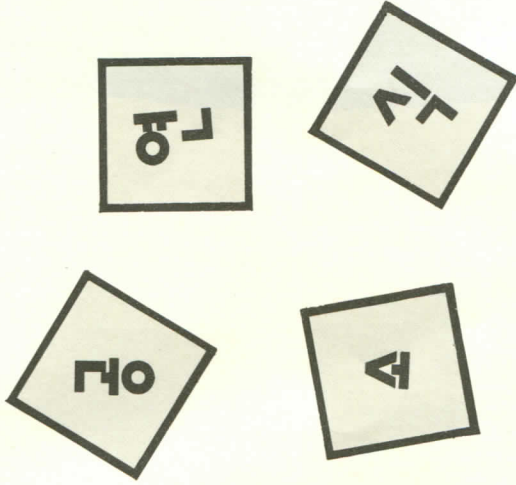


하녀

작·연출 : 이창복
출연 : 이병철, 김영웅, 윤선희
강현중, 심창신, 안성혜
권남희, 최진옥, 이성훈
일시 : 94. 5. 13 (금) ▶ 15(일)
5시 · 7시 30분
장소 : 부산문화회관중강당



본 작품은 동학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주에서 열리는
동학연극제에 참가,
5. 21(토) ~ 22(일) 4시, 7시,
전주 특설무대에서 공연할
것이며,
또한 수원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연극제에
부산 대표로 참가,
5/ 28(토), 4:30, 7:30
경기도 수원 문화예술회관
에서 공연할 것입니다.



작품해설

극단 열린무대의 공연 〈하늬〉는 동학혁명 100주년이 되는 1994년을 맞이하여 100년 전의 역사적 상황을 되새기고 아울러 같은 호남지역에서 14년 전 일어났던 광주민주항쟁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두 역사적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점과 도도히 이어지는 정신을 현재적 시각에서 되짚어보고자 창작된 작품이다.

앵커의 해설을 통해 시간대별로 전해지는 광주의 열흘간의 사실과 호남지역에서 100년 전 펼쳐진 상황이 이중구조로 맞물려 장면이 진행된다.

주된 장면으로 설정된 것은 물론 100년 전 농민들의 봉기를 둘러싼 상황들이다. 그 상황들이 단순한 과거 역사의 재현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동엽 시인의 〈금강〉에서 창조된 인물인 하늬를 건강한 의식을 지닌 민중의 전형으로 해석, 작품속에서 재창조했으며, 역사적 인물인 전봉준과 함께 펼쳐보이는 그들의 현실관, 당대 조정과의 대결, 외세에 대한 대응방식, 외교 개념에 대한 피력 등을 통해 나라를 걱정하고 민중들의 바른 삶의 형태를 꿈꾸는 인물로 그려 현재의 우리에게 하나의 전형을 제시하려 한다.

중심 이야기의 시작은 싸릿골 마을, 아낙들이 빨래터에 앉아 생활고에 대해 서 이야기하고 하늬치는 내려오는 방울을 지키기 위해 몸을 팔아 시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고는 방울을 꼭 지키려는 말을 남긴 채 마을을 떠난다. 전봉준과 하늬는 서로의 의견 차로 쉽게 봉기를 하지 못하다가 고부군수로 조병갑이 다시 부임하자 전주성을 친다.

평화로온 집
남원대와 홀이
로 이루어진다

한양을 치지
대립되고, 남북
지게 된다. 드
치에서 전멸하
에게 건네주는
무리된다.

이 작품은 무
대해서도, 100
예술적 완성도
고 작품 〈하늬〉
어 수입물품이
되려는 시기에
보게 한다는 점



평화로운 집강소 시절, 영호남의 화합적 차원과 폐정개혁안에 따라 과부인 남원태과 홀아비인 밀양 남정네가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이 집강소에 의한 자치로 이루어진다.

한양을 치자는 하늬와 조정과 화약을 맺자는 전봉준의 의견은 더 팽팽하게 대립되고, 남북잡의 충돌, 청에 이어 일본의 군대가 물려오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드디어 남북잡이 하나가 되어 금강을 끼고 진격하려 하지만 우금치에서 전멸하고 만다. 쓰러진 하늬치는 깃발을 하늬에게, 하늬는 방울을 처에게 건네주는 가운데, <새야 새야>, <오월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극은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역사를 보는 시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광주의 5월에 대해서도, 100년 전의 동학혁명에 대해서도 저서를 통한 성과물은 나타났으나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무대 언어로는 아직도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작품 <하늬>를 통해 그러한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또한 UR시대에 접어들어 수입물품이 밀려 들어오는 현시점에서 이 땅의 100년 전 근대 문명이 유입 되려는 시기에 조정의 입장과 농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대응방식을 찾아



이 창 복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상업교육과 졸업
제11, 12회 부산연극제 연출상 수상,
「금강 1894」,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한씨연대기」, 「최선생」, 「완전한 만남」 등
다수 연출

1 형에게

어느날 지하극장을 나서니 봄이 있었습니니다. 산업도로 위의 차들은 제법 여유 있게 유리문을 내려놓았고, 거리의 여자들은 파스텔 조의 옷으로 몸을 치장한 채 여유있게 보이더군요. 아스팔트위에서 올해의 첫봄을 만났습니다. 긴장은 어 떠신지요? 지난번 친구들 모임에서 들은 얘긴데 모두들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한 친구 말로는 특별한 약이 없대요. 그저 싱싱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조금만 맛 있게 먹는 것이 최선이랍니다. 형이 좋아하던 산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 다. 맑은 공기가 건강에 도움이 될테니까요. 저희야 여느 겨울이나 마찬가지로 새봄 무대를 준비하느라 지하에서 겨울을 피했습니다. 감기를 앓기도 했지만 단 원들 모두 건강합니다. 답배는 결국 줄이지 못했습니다. 500W전구의 광선 아래 로 10여명이 무대를 바라보며 뿔어내는 담배연기는 가히 아우슈비츠의 가스실 과 같지요.

지금 생각하면 역시 줄여 피웠어야 했어요. 맑은 공기를 만끽했던 때도 있 었습니다. 이번 저희 작품은 동학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 이 땅의 농민군이 밟았던 의로운 길을 단원들과 함께 MT겸 해서 다녀 왔습니다. 동학혁명의 진원지였던 고부, 태인, 부여, 황토현, 전주성, 우금치 등 등 농민군의 진격지를 따라가며 100년 전의 합성을 들었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인상깊었던 것은 호남의 흠뻑이었습니다. 호남의 땅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붉은빛이었습니다. 위낙이 기름진 땅이라 붉은빛인가, 100년 전 흘린 농민군의 피를 아직도 이땅이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었지요.

이왕 작품애기가 나왔으니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을 내서 100년 전의 역사와 광주민중항쟁을 작품속에 병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구성이 동학혁 명의 정신이 어떻게 현재화되고 미래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점에 유용하 리란 믿음에서였습니다. 광주항쟁은 모니터를 설치하여 진행시키고, 연극무대 와 모니터 설치가 유리되지 않도록 앵커는 배우가 말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형이 시간나는 대로 공연보시고 작품을 비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

형이 공연을 보시고 따뜻한 눈길로 무대를 향해 박수치는 모습을 만나기를 기 대합니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이왕이면 형수님하고 아이 들 데리고 공연장에 오세요. 형의 두통에 도움이 되는 공연이 되도록 저희는 계 속 노력하겠습니다.



◦ 앵커 / 이병철
동아대 대학원 졸업
교사를 위한 연극교실 워크숍
무대에 출제 「한씨 연대기」
「하늬」출연



◦ 진봉준 / 강현중
하동종합고등학교 졸업
「한씨 연대기」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최신생」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완전한 만남」
「하늬」출연
제10회 부산연극제 신인상 수상
제12회 남자 최우수 연기상 수상

◦ 하늬처 / 윤신
정성대학교 대학원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최신생」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아바돈을 위한 조」
「시민K」
「산셋김」출연
제9회 부산연극제 신인상 수상

◦ 하늬 / 김 영 응

대동고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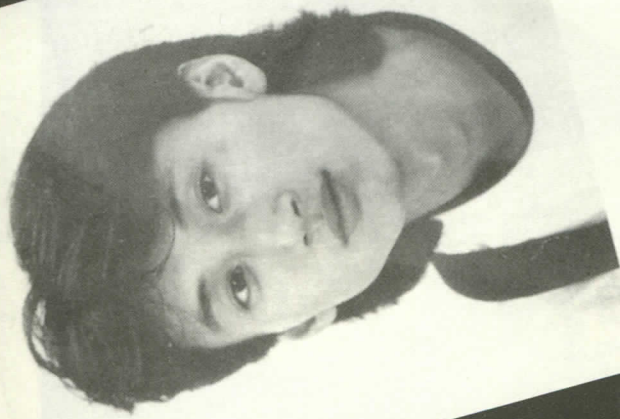
「19 그리고 80」

「사의 찬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허생전」 출연

88년 진주 개천예술제 연기상 수상



◦ 하늬치 / 윤 선 희

경성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재학중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최선생」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아바돈을 위한 조곡」

「시민K」

「산썩김」 출연

제9회 부산연극제 최우수여자연기상 수상



◦ 조병갑·밀양 남정네 / 심창신
부산수산대 무역학과 졸업
「완전한 만남」
「하늬」출연



◦ 질양자·남정네 / 이성훈
동래고 졸업
「하늬」출연



◦ 광주대 / 안
부산진여상 졸업
「완전한 만남」
「하늬」출연
제12회 부산연극





◦ 남원택 / 권 남 희
 부산대 국어교육학과 졸
 「오기나와에서 온 편지」
 「한씨 연대기」
 「코리마가」
 「TF <부제 : 칼로 물베기>」 출연



◦ 광주दै / 안 성 혜
 부산진여상 졸
 「완전한 만남」
 「하늬」 출연
 제12회 부산연극제 신인연기상 수상



◦ 목포백 / 최진옥
동래여전 실내디자인학과 재학
「하늬」출연

만든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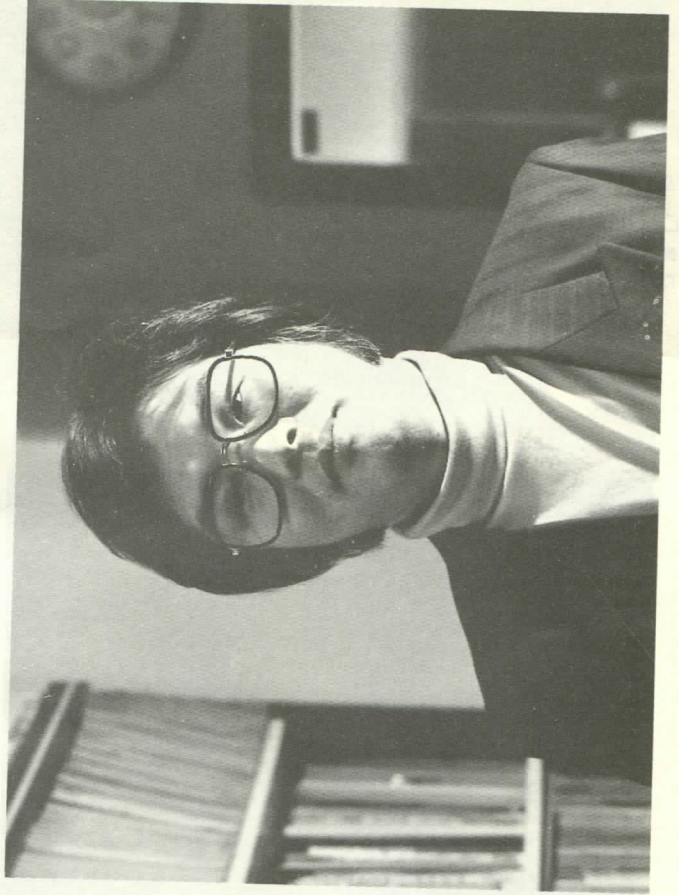


◦ 무대장치 / 최정원
동의대 산업디자인학과 출
「하늬」출연

◦ 작
부산
「밀린
「백배
「오메
「돼지
「물이
「칠산
「동의
「자강
「팔만
「사천
「갈대



◦ 조명 / 천은경
부산수산대 해양공학과 졸



◦ 작곡 / 박철홍
부산대 공대 졸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택배드」
「오메가 햄릿」
「폐지와 오토바이」
「물이며, 불이며, 바람이며」
「칠산리」
「동의보감」
「자갈치」 등 80여편 작곡
「팔만대장경」
「사친왕사 왔소」
「갈대」 등 TV방송음악 작곡



° 음향 / 오 영
부산수산대 무역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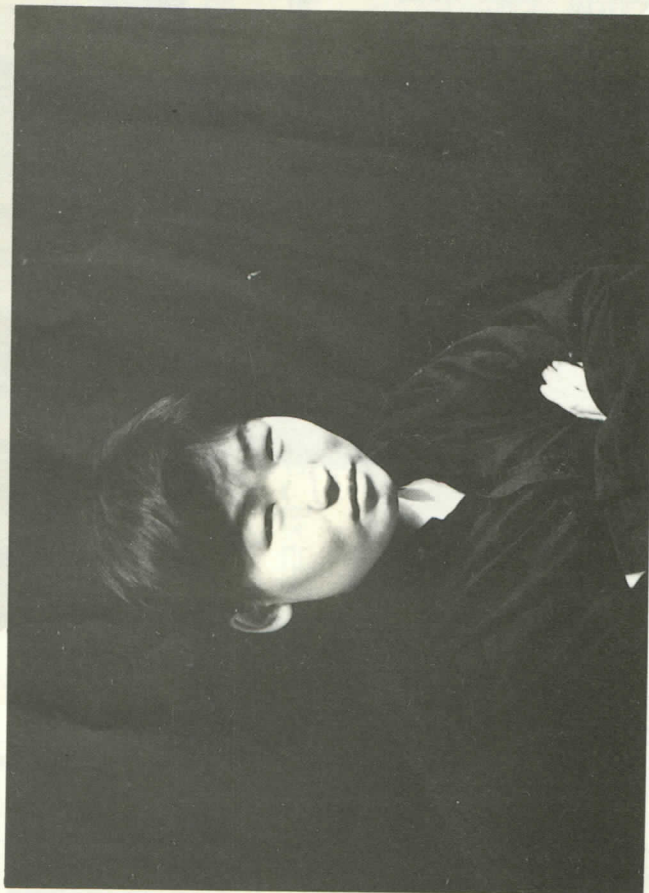


° 분장 / 백 현 주
동의대 불어 불문학과 재학
「한씨연대기」
「허녀」 출연

° ...
° ...



◦의상 / 엄미영
방송통신대학 가정과 재학



◦소품 / 장은선
부산남여상졸

극단 열린무대 <하늬> 대賞영예



제12회 부산연극제 대상을 차지한 극단 열린무대 의 <하늬>.

극단 열린무대 19
제12회 부산연극제 대상 축하 공연 <하늬>

극단 열린무대 <하늬>가 수상한 대상을 축하하는 모습

극단 열린무대 <하늬>가 수상한 대상을 축하하는 모습. 극단 열린무대 <하늬>는 이번 제12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열린무대 <하늬>는 이번 제12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열린무대 <하늬>는 이번 제12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열린무대 <하늬>는 이번 제12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열린무대 <하늬>는 이번 제12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열린무대 <하늬>는 이번 제12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열린무대 <하늬>는 이번 제12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열린무대 <하늬>는 이번 제12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열린무대 <하늬>는 이번 제12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구명옥

작년 부산연극제에서 「완전한 만남」으로 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극단 열린무대가 올해 부산연극제에서 「하니」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출가 이창복 씨로서는 연출상을 2년 연속 움켜 쥐게 된 것이다. 「하니」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 충격적인 무대였다.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에서 느꼈던 감동, 그 이상의 것을 열린무대의 「하니」에서 보았다.

연극의 주내용은 동학혁명을 다루면서 그 사이에 80년 광주의 열흘간의 사실이 열다섯 대의 비디오 모니터와 앵커의 해설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동학혁명과 광주민주항쟁이 병렬구성으로 전개되어 '가슴 두근거리리는 큰 역사'의 연속적 의의를 강조하며 그 도도히 이어지는 정신을 현재화, 미래화하고자 한다. 이는 뛰어난 주제의식과 형식미를 동시에 구현한다.

'하니'의 주제는,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는 민중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열린무대의 작품 해설을 보면 "그 상황들이 단순한 과거 역사의 재현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동엽 시인의 '금강'에서 창조된 인물인 하니를 건강한 의식을 지닌 민중의 전형으로 해석, 작품속에서 재 창조했다"고 한다.

「하니」는 「금강」을 각색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만큼 여러 공통부분을 지니는데, 문제는 「하니」의 하니가 「금강」의 하니를 재창조했다기 보다는 그대로 차용하여 하니가 민중의 전형으로 미흡했던 면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니는 아끼일 때 은방울을 지닌 채 버려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양육된다. 이는 고귀한 출생, 유아기인 하니의...

처가 양반에게 성적으로 유린되고 하니를 떠나면서 하니가 겪는 고통도 영웅의 시련 혹은 통과제의로 볼 수 있다. 기아와 박해, 시련 등으로 성장하게 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결정적으로 은방울은 고귀한 신분으로서의 출생을 의미하며, 이는 하니를 민중의 전형으로 형상화하는데 문제가 되고 보인다.

「하니」가 역사주체로서의 민중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는 하니가 민중의 전형으로 미흡하다는 것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더 들 수 있다. 극의 전반부에서 농민의 차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니와 전봉준은 표준말을, 그 외 다른 인물들은 전라도 사투리-밀양 남정네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하니와 전봉준은 전라도 민중이 아니라 영웅의 신분증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들이란 뜻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하니 처는 은방울을 팔아서 시어머니 약값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은방울을 지키기 위해 지주에게 매춘행위를 하여 약값을 마련한다. 그리고는 하니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는데, 자신의 모든 것과 맞바꿀 만큼 은방울이 소중한 것으로 다루어진 것이 설득력이 없고 주제 형상화에도 도움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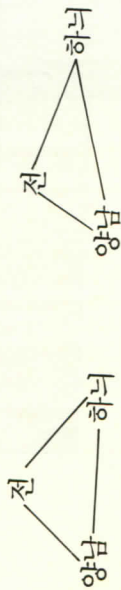
배우의 연기 문제에 있어서는 전봉준의 역을 맡은 강현중이 남자 연기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듯이 주인공 하니와 부인물 전봉준의 역할이 전도되어 전봉준이 주인공처럼 강조되고 있다. 전봉준은 신체적 조건으로나 힘있고 무게있는 목소리로나 뛰어난 연기력으로나,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과 약

전봉준 한...
에서는 한...
삼각형을...
이 된다. 하...
조되며, 하...
구도에서...
도 있다. 하...
고수한 체...
에 서는 것...
될 수밖에...
더욱 비중...
있는 방법...
다음과 같...

양남
그리하여
위치, 양남...
을 것 같다.
가 노인역...
드러진 연기...
싶다.

극의 전환
'comic relief'
분위기에 어...
네가 혼례식...
항쟁에서 드...
는 것으로 생...
름을 빨리 들...
으며, 조명을...
지로 넓혔고...
이 박수를 보...
으로 끌어들이...
뽀과 공동체...
「하니」는...
뛰어나다고 평...
출로 관객을 시...
향, 음악 등이...
마치 잘 빛은...
윤장한 관현악

진봉준과 하늬, 양남 세 사람이 방에서 모이는 장면에서는 항상 진봉준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세 사람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진봉준이 항상 중앙의 꼭지점이 된다. 그것도 진봉준 몸위치가 정면위로 더욱 강조되며, 하늬는 1/2 몸 위치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런 구도에서 진봉준은 높이에 의해서까지 강조받는 경우도 있다. 즉 진봉준이 삼각형의 꼭지점과 정면위치를 고수한 채, 진봉준은 높은 곳에 하늬와 양남은 낮은 곳에 서는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하늬는 진봉준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양남과 대등한 위치를 보임으로 해서 더욱 비중이 적어지는 것이다. 하늬를 좀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몸위치를 바꾸어 볼 수 있다. 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본다.



그리하여 진봉준이 3/4 몸위치, 하늬가 3/4의 몸위치, 양남이 1/4의 몸위치를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그외의 인물들의 연기는 광주택의 안성혜가 노인 역을 훌륭히 해 내었고 목포택의 최진옥이 간드러진 연기로 극의 분위기를 잘 살린 점을 높이 사고 싶다.

극의 전환 부분은 희극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comic relief'로 긴장을 이완하는 부분이다. 희극적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과부 남편택과 홀아비 밀양 남정네가 혼례식을 치르는 장을 설정했는데 이는 광주민주항쟁에서 드러났던 영호남 지역 갈등의 화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혼례 치르는 과정을 영화에서 필름을 빨리 돌리는 것처럼 보여주어서 폭소를 자아내었으며, 조명을 객석까지 환하게 밝혀서 무대를 객석까지로 넓혔고 신랑 신부가 관객에게 큰 절을 하고, 관객이 박수를 보냄으로써 자연스레 관객을 혼례식의 하객으로 끌어들이고 그들과 같이 해방공간에서의 평화와 기쁨과 공동체 의식을 누리게 했다.

「하늬」는 앞에서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주체의식과 화려한 연출로 관객을 시종일관 사로잡았다. 무대장치, 조명, 음향, 음악 등이 각각 빛을 발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잘 빛은 향아리 앞에 서 있는 듯 또는 아름답고 웅장한 관현악 속에 있는 듯하다.

대를 가로지른 벽은 붉은 황토빛으로 농민들의 삶과 그 힘을 상징하고, 특히 진주성을 치는 장면에서 인물들이 죽창을 들고 무대를 가로질러 어지럽게 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진가를 발휘했다. 배우들이 있는 무대 전면을 어둡게 하고 무대 뒤를 붉은 빛으로 물들이자 그 벽은 잘 조각된 무늬를 드러내어 붉은 조명을 이끌어갈 타오르는 불꽃모양으로 비취내어 혁명의 분위기가 상징성을 더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우금치 전 투쟁면에서는 수평이던 벽의 중간 부분을 뒤로 열어 찢혀서 점점 높아지는 계단이 드러나게 하여 수직의 무대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때 벽의 위쪽 끝에 솟아있던 여러 개의 막대기 모양은 수직 상승의 느낌을 더 강조했고 무대 바닥과 계단위의 인물들이 들고 있는 죽창과 잘 어울렸다. 무대 구성에서 수직선은 웅장함, 위엄, 당당하고 강력한 인상, 하늘로 솟아 오르고 싶은 열망 등을 표현하는데 마지막 우금치 장면을 수직선의 무대 구조로 만든 것은 탁월한 표현이었다. 이 장면에서 인물들은 아주 느린 동작을 취해 오히려 빠르고 긴박한 장면 묘사를 해 낸다. 그리고 느린 동작과 죽창, 깃발과 대조적으로 천동같이 크고 빠른 기관총 소리가 난사되어 관객들의 가슴 속에 깊고 아프게 박히게 된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동학농민전쟁을 소재로 한 '새야 새야'와 광주민주항쟁을 소재로 하여 80년대에 널리 불리어진 '오월의 노래'의 멜로디가 흘러 나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뛰면서 함께 어울린 모습을 연상시키는 흰 바지 저고리 수심 별이 무대 뒷면에 서서히 올라간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쓰러져 죽었는데 잠깐의 암전 뒤에 모두 꽃잎이 일어난다. 앵커맨이 모니터 상에서 나와 이들 옆으로 와 선다. 연극이 끝난 것이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연극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인물들은 무대 왼쪽에 있는 15개의 비디오 모니터를 향해 손짓을 보낸다. 관객은 박수를 하고, 다시 무대 뒤의 흰 바지 저고리에 손짓을 보내고, 관객은 박수를 한다. 80년의 광주를 위하여 감오년의 민중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의 우리가 눈시울 뜨거울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이 연극은 끝난다. 끝으로 인물이 아닌 배우로서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하고 관객은 배우들을 향하여, 연극 「하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그러나 또한, 끝나지 않았다. 「하늬」는 우리 가슴 속에 깊고도 오래 울림을